

전통가옥의 결정체 료칸[旅館]

일본 전통가옥의 결정체인 료칸은 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기에 몇 가지 보수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일본 정부의 관광산업 육성과 맞물려 최근 이런 료칸들의 오랜 관행이 변화하기 시작하고 있음

□ 료칸(旅館)의 특징

- 일본의 전통 가옥의 풍미를 즐기면서 고유한 일본 문화를 그대로 체험할 수 있는 곳이 료칸(旅館)임
 - 료칸은 우리말로 여관이라고 읽을 수 있지만 서서히 자취를 감추고 있는 길 옆 허름한 여관과는 차원이 다름
 - 다다미 위에 깔리는 이불은 물론 각종 일본식 가옥을 체험할 수 있는 료칸은 일본 전통 가옥의 결정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님
 - 이 뿐만이 아니라 수십 년은 가꾸고 다듬은 것 같아 보이는 정원의 조경과 실내장식을 통해서도 일본 전통가옥의 느낌을 느낄 수 있음
- 더욱이 노천온천이 곁들여지고 극진한 시중을 받으면 특급 호텔이 부럽지 않게 되는데 그래서 숙박요금도 결코 저렴하지 않음
 - 숙박비는 방을 기준으로 해서 책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머무는 사람이 몇 명인가가 기준이 되며, 숙박비보다는 방에 직접 차려주는 저녁 밥값이 매우 비쌘

- * 그렇지만 일본고유의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고 식사하는 동안 수시로 드나들며 지극정성으로 서비스를 하는 모습을 보면 그만한 대가가 필요했구나 생각하게 됨
- 전통적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료칸이기 때문인지 상당히 보수적인 측면을 엿볼 수 있음
 - 무엇보다도 몇 십 명씩 묵게 되는 단체예약은 거의 받지 않는데 편안하게 손님을 모시는 것을 가장 우선시 하는 료칸 고유의 이미지와 맞지 않기 때문임
 - 물론 대부분의 료칸을 찾는 손님 역시 품격 높은 서비스를 받으며 조용하게 쉬었다 가고 싶어 함
 - 신용카드의 사용이 안 되고 예약 역시 직접 전화를 걸어서 해야 하는데 전통적인 서비스를 고수하는 료칸 특유의 관행을 이해하지 못하는 외국인 손님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음
- * 호텔과는 달리 외국어가 통하지 않는 것은 물론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의 행동에 눈살을 찌푸리는 일본 손님들을 의식하기 때문임

□ 료칸(旅館)의 변화

- 일본정부가 최근 관광산업 육성을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적극적인 해외 홍보를 펼치고 있어 료칸들도 이에 보조를 맞추어 개방적으로 변하고 있음
- 2004년에는 당시 고이즈미 총리가 직접 홍보영화에 출연해 ‘요우코소(ようこそ) 재팬’을 외치며 비지트 재팬 캠페인(VJC)을 전개했음
- 일본이 그간 소홀히 했다고 자성하며 새롭게 국가정책의 중요사안으로 관광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함

- 전국 각지의 온천과 료칸의 고유문화를 앞세워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
- * 지방자치단체 선거 때마다 지역발전을 위해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공약이 단골메뉴로 등장하고 있으며, 일본정부 역시 천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음
- * 특히 지리적으로 가까운 한국의 관광객이 최우선 유치대상으로 꼽히고 있는데 한국에 지자체 출장소를 마련하는가 하면 매스컴에 직접 광고까지 하고 있음
- * 한류에 힘입어 한국을 찾는 일본 여행객이 늘고 있는 가운데 반대로 한국 관광객을 일본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음